



불교적 색채 덧입힌 태국문화와 만나다

한국이 아세안 한류의 중심인 불교국가 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거대한 와불상이 모셔진 왓포! 417년간 왕조를 수호한 아유타야 유적! 비행기로 5시간이면 느낄 수 있는 태국 문화를 향한 찬사는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전 인구의 93%가 불교도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대한 불교 유적임을 도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태국 불교와 문화의 숨결이 한국을 찾았다.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행사로 반세기 수교사를 기념한다. 1958년 10월1일 국교 수립 이후 문화교

통을 겸비한 태국의 손꼽히는 예술 단체이다. '곤'은 불교와 힌두교 문화에 전 해오는 고대 서사시 '라마야나'의 웅망한 장군 '하누만'을 그린다. 천상의 신 '비슈누'와 '락시미'가 인간계로 내려와 라마 왕과 시다 왕비로 태어나고, 악인 '토차칸'이 왕비를 납치하자 선과 악의 군대가 대결한다. 종교제외의 제스처에서 비롯된 미묘한 손발과 관절의 꺾임, 화려한 수공예 의상, 악단의 노래로 고대 태국의 왕실과 만난다. (02)2280-4114

<카르마>는 한국과 태국의 공통된 정서인 '한(恨)'을 주제로 한 감성 공포영화다. 현상의 일체는 '카르마(Karma)'에 의한 인연법임을 이야기한다.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

전통인형극 '곤(Khon)' 19일부터 이틀간 영화 '카르마' 씨너스극장서 19일 개봉



국립극장에서 펼쳐지는 <Amazing Thailand - 태국 전통인형극과 무용의 만남> 공연.



태국영화 <카르마>의 한 장면.

류 정책의 추이를 제형하는 기회다. 공연 무대에서 펼쳐지는 <태국 전통인형극과 무용의 만남>은 태국의 과거 문화유산, 인간의 뒤떨린 욕망을 주제로 한 공포 영화 <카르마(Karma, 業)>는 태국의 트렌드 문화를 대변한다.

<Amazing Thailand - 태국 전통인형극과 무용의 만남>은 6월 19·20일 양일간 국립극장 KB청소년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주한태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특별공연에서는 태국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진정성을 맛볼 수 있다. 전통인형극 곤(Khon), 가면무용극, 민속무용과 실내악단의 연주 등 폭넓은 장르의 공연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조 루이스 태국전통인형극단과 번디팟타나실과 연구소는 실력과 전

통(惡因苦果)인 불교의 인과응보설이 극의 전개를 뒷받침한다.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태국의 전설을 바탕으로 죽어서까지 곁에 두고 싶은 사랑을 간직한 두 여자의 한(恨)이 만들어 낸 애잔한 정서를 담았다. '아름답고 슬픈 호러'라는 수식어에서 짐작하듯 영화는 전쟁 중 떠난 남편을 찾아 상경한 순박한 시골 처녀 '누알'과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스럽고 고혹적인 '란' 부인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다.

영화의 배경은 1930년 프랑스 점령기로 미얀마와 태국의 내전상황이다.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영화 <웅박>으로 친숙한 '콘케이오메시'가 맡았다. 오랜 전설을 모티브로 제작되어 흥미로운 태국의 감성을 전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한 올 한 올 고이 엮은 '佛心'

'매듭염주展' 이달 16일까지 예나르 화랑서 개최

전통매듭 염주에 불심의 정진력을 담았다.

전통매듭 연구가 성낙윤(소유 대표)씨는 6월 16일까지 종로구 소격동 고미술 전문화랑 '예나르'에서 매듭염주 전시를 연다. 한복의 장신구나 전통공예품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우리의 전통 매듭이 알알이 맺힌 불심과 만난 것. 예술적인 기품이 진중하듯 깃든 일상의 종교용품이다. 구슬형태의 가락지매듭이 지닌 부드러운 다양한 색상이 자연의 소박함과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평소 매듭염주를 선물하던 것이 오랜 즐거움이다. 이 염주를 기도하시는 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매듭 한 알 한 알을 밀화·산호·비취와 같은 귀한 보석으로 여기며 일념으로 엮었다. 부처님의 가피에 보은하는 그 시간은 무아의 세계를



전통매듭 연구가 성낙윤 선생.



매듭염주 작품.

거니는 행복과 같다"고 말한다. 인간문화재 최은순(87)에게 매듭을 배우고, 삼배와 길잡은 인간문화재 김점순(1918-2008)에게 배워

다. 현재 청담동에서 혼례용품과 사계절 침구 등 인테리어 소품을 손수 제작하고 있다. (02)739-4200 가연숙 기자

불상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

트렁크갤러리 '이단, 이단하다 展'

불상과 여성의 벗은 몸이 중첩된 이미지가 있다. 나의 견본(見分)주관이 가장 먼저 선택한 이미지는 무엇일까. 이 겹침의 혼합이 흥미롭고 또한 혼란스럽다.

불상에 투사된 조형성과 상징성에 도전한다. 6월 10일 트렁크갤러리(박영숙 대표)에서 막을 내린 '이단, 이단하다'展에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시대의 '몸의 정치학'을 기초로 한, 자신의 섹슈얼리티적 욕망을 구성한다. 부처의 상에 내재된 경도된 자기에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의 불이(不二)다. 나를 향한 사랑과 보살이 지닌 자비가 하나의 의도된 자연스러움으로 결합하며 이들 사이의 경계를 동요시킨다. 누드가 지닌 자기로부터의 소외가 폭력이나 신성함의 결계를 형성한다.

불상과 욕망, 이 둘은 대원력이 다. 작가는 이단의 자아의 욕망을 불상이라는 거울로 투영한다. 불상이 지닌 경건함과 진리의 생명력을 전유하여 거짓된 우상을 파괴하고 여성의 나르시시즘을 찬양한다. 시대



작품명 'Quantity of matter #2'.

를 살아가는 나(self), 초월 하려는 자아의 확장, '여성성'에 의존하는 내 몸의 해체는 또 다른 상상력을 추구한다. 기존질서의 혼란함, 내 욕망의 실체, 통념적 가치관에 시달리는 내 내면의 솔직한 고백이다. 본질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구도이다.

가연숙 기자

성룡 스님 소나기展 18일부터 24일까지

한바탕 비가 내린다. 누군가의 갈증을 식히고 누군가의 집이 될 진우(陣雨)다.

'조그만 샘에서 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고 바다는 다시 샘으로 돌아간다. 삶의 언덕도 또한 그러한데. 그런 가운데 물고기는 재복을 이루고 집안을 지켜준다는 속설이 있으니 그 힘을 빌려 샘에서 나온 물로 차 한 잔 내려 올려야겠다.'

성룡 스님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서호에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소나기(陣雨)展을 연다. 일상의 깨달음을 해학적으로 선화(禪畵)와 점묵시킨 화가의 미술세계와 만난다.

선정에 든 선방 스님의 표정 속에 현악 3중주가 담겨 있다. 등글고 또한 밝은 빛이 감싸는 우주를 노래한다.

가연숙 기자

대웅전 건립불사
전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진 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십시오.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휴대폰: 011)288-2944

현대 결혼연구원

■ 대추,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희담석 www.jawonet.com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마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침상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체방출의 간접을 중성시켜 드립니다. (뒤편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규격: 가로: 100cm, 세로: 200cm · 무게 : 11kg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 45,000원
●크 기 : 45cm×45cm

사용처
좌선승,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매트
- 이침에 일어나도 깨운하지 않은 분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희담석 베개용 매트
●가 격 :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매트용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뒤편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호동 179-48 금곡빌딩 8038
TEL:02)3476-2335 FAX:02)3476-2505